

성주도씨 종중 문서 일괄

(星州都氏 宗中 文書 一括)



- 지정번호 : 보물 제724호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조선 태조 이성계가 노은(魯隱) 도옹(都膺)에게 내린 왕지(王旨: 관직 임명장) 4매와 녹패(祿牌: 봉급표) 1매이다. 현전하는 조선 태조 때의 사령왕지로서 태조 4년(1395) 및 태조 6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사급된 것이 보물 제438호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 문서들은 그보다 앞선 태조 2년(1393) 및 태조 3년의 것을 포함하여 태조 4년과 태조 6년에 사급된 왕지와 태조 3년의 녹패가 새로 나타난 것이다.

도옹(都膺)은 고려 말의 충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예(子藝), 호는 청송당(靑松堂)이다. 이성계의 어린 시절 친구로 고려 우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공민왕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지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관직을 그만두고 충청도 홍주(洪州) 노은동(老隱洞)에 은거하였다. 그 뒤 태조가 4차례나 벼슬을 내리며 조정으로 올라오기를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하고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태조는 도옹의 고려왕실에 대한 충성과 질의를 아름답게 여겨 비단에 청송당(靑松堂)이라는 호(號)를 써서 내리고, 도옹의 자손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문서의 내용은 태조 2년(1393) 조봉대부(朝奉大夫) 전의소감(典醫小監), 태조 3년(1394) 선절장군(宣節將軍) 흥위위(興威衛) 좌령장군(左領將軍), 태조 4년(1395) 선절장군 용무위사(龍武衛司) 좌령장군, 태조 6년(1397) 보공장군(保功將軍)에 임명한 왕지와 태조 3년(1394) 10월에 도옹에게 갑술년의 제9과 녹봉(祿俸)으로 경창미(京倉米) 170석을 지급한다는 녹패이다.

왕지에는 고려 말 조선 초의 관직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으며, '조선지보(朝鮮之寶)'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이것은 태종 이후에 '조선국왕지보'나 『경국대전』반포 후에 사용된 '시명지보(施命之寶)'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왕지의 필체는 조선 초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초서체이다.

성주도씨 고문서는 조선 전기 관제의 변천과정, 새로[醴寶, 국왕의 도장]의 사용경위, 서체의 변천 그리고 공문서 양식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물은 논산시 연산면의 성주도씨 종중에서 보관하다가 현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기탁 보관하고 있다.

〈자료제공 : 충남역사박물관〉